

5병 2어의 기적의 의미

본문: 요한복음 6:1-15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사물을 보거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일어난다. 똑 같은 사실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현저한 차이를 초래 한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5병2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에서 빌립이 보는 시각과 무리들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1. 빌립이 보는 시각.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에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다. 그들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는 것을 보았고 목자 없는 양으로서 갈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란 것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해가 지도록 가르치셨다(마가복음 6:34). 다음에는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제자중 한 사람 빌립에게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다. 이 질문은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빌립의 대답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 사실을 바라본 것이다.

그래서 그 대답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대답과는 완전히 다른 대답이었다.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유대 지도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와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3일만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말했다.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 나아 하겠다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물었다. 우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네가 나에게 구하면 생수를 주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물길을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내게 주실 수 있습니까?” 빌립역시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유대인들이나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어나 빌립과 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이해 하고자 하면 절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날에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물을 보거나 우리가 처하는 현실을 볼 것인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볼 것인가에 따라 그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빌립과 다를바 없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구석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이 적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신 것이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안드레와 같은 아주 미미한 시각의 차이가 얼마나 빌립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II. 무리들의 시각

무리들은 5병2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계속해서 떡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배고픈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이유이다(15). 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소위 번영의 복음의 근본적인 잘못이다. 육적 물질적인 만족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떠나신다.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15).

그러면 그는 왕이 아닌가? 왕이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빌라도가 그에게 물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요 18:33).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8: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왕이지만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영적인 삶을 다스려 주신 영적인 왕이시다. 육신의 빵을 통해서 배고픔을 만족시킨 것은 부분적인 만족이라면 진정한 빵이 되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적인 만족을 얻는 것은 온전한 만족이다. 그러므로 계속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만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힘이 없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육적인 필요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다.

III. 예수님의 시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6:51)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필요만을 만족 시켜 주기 위하여 병을 낫게 해 주고 빵을 만들어 먹여 주며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 시켜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죄인들의 영원한 만족을 위하여 그 자신이 양식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시는 것이다.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니라(51)”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적인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5병 2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떡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를 따르도록 도움을 준 표적이 된다.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우리가 5병2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직면 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불가능한 것이 산처럼 가로 막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아 물러가라고 외치면 산이 물러 간다는 것을 믿고 그런 체험을 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증진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 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것을 이해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능력을 덧 입어 우리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능히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다.

1992년, 영국을 방문 했을 때 몇 분의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영국의 교회를 냉장고 교회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었다.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나이드는 분들만 모인 교회가 되어 교회가 냉장고처럼 차가워 지고 있다고 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 왔다, 당시 나는 학생 선교단체들 중의 한 단체의 대표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몇몇 목사들과 학생 선교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학원 복음화 협의회를 조직하였다. 교회는 학생 단체들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학생 단체는 캠퍼스에서 전도한 학생들을 교회로 보냄으로 청년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그후 내가 개척하여 섬기고 있던 교회만 해도 조그만 사이즈의 교회이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150명이 모였고 청소년부가 80명 이상 모였고 청년부가 1-2부 합해서 200명이 모였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가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시대적인 문제라고 손 놓고 있어야만 하겠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그를 온전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일을 함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출생율이 현저히 줄어 들고 있는 것도 이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출생율이 늘어나게 하는 일도 정부가 못한 것을 교회가 할 수 있다. 교회에 청년들이 모여들고 믿는 청년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될 때 출생 율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참 메시아,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가르칠 때 우리는 시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